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꿈꾸다



임정현 학생은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로 임상을 경험하고 지난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진학해 보건정책관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임정현 학생은 2년 전만 해도 환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는 임상 간호사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로 근무한지 3년째 되는 해 임정현 학생은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택한 길은 임상 간호사가 많이 진학하는 간호대학원이 아니었다. 보건대학원, 그것도 보건정책관리학전공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였다.

“임상 현장에 있을 때는 항상 의문이 많았어요. 왜 항상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환자는 넘쳐나는지, 왜 환자가 퇴원할 때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굳이 먼 큰 병원으로 오는 일은 왜 계속 반복되는지 같은 의문이에요. 또 정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맞닥뜨릴 때도 그런 의문을 품었죠. 이왕 공부할 거면 환자를 위한 보건 정책을 고민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 보건

대학원을 지원했어요.”

현장에서 느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보건대학원 수업은 임정현 학생에게 문화충격에 버금가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학창시절 내내 이과 공부를 중심으로 해왔던 터라 역학, 통계학 같은 수업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과적 소양이 필요한 국제보건 같은 과목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이 길이 맞나’라는 고민이 거듭됐지만 차차 임상에서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보건지원강사 아르바이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자해나 불안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의 임정현 학생.

습니다. 병원은 대체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 치료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죠. 학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질 높은 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아직 현장의 보건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또 지역사회보건실습의 일환으로 시작한 노숙인의 정신적 습관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도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 직접 노숙인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보다 직접 대상자를 만나 연구하는 경험도 뜻깊었다. 임정현 학생은 조원들과 함께 이 연구를 보완해서 곧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다. “저도 조원들도 직접 대상자를 만나 연구하는 질적 연구는 처음 해봐서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숙인에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실태는 더 부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인과관계와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보건학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를 경험하고 싶어

새로운 공부에 적응하라, 아르바이트 하라 정신없이 대학

원 첫 해를 마무리 지은 임정현 학생은 올해 이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고민이 많았어요. 올해는 장학금 덕분에 부담이 해결되면서 공부를 우선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연구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 방법론 등 추가적인 과정을 이수하는데도 부담이 크게 덜어졌습니다. 지금은 보건경제학 연구실 내에 심장재활 관련 경제성 평가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학생자치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일을 해내는 성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인데 성취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임정현 학생은 석사 학위 취득 후 다시 학교 밖으로 나갈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정책의 영향·효과 평가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다. ‘거시적인 정책 연구도 좋지만, 임상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임정현 학생은 ‘더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과정 진학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나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글 편집부**



노숙인의 정신적 습관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임정현 학생.